

이채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작 ‘노크’ 차트 역주행 후 자신감
퍼포먼스 살린 ‘렛츠 댄스’로 컴백
“아이즈원 후 공백기 조금함” 고백
“내 매력 확신 가져...여유 생겨 행복”



잘 하는 걸 했더니 빛났다. 표정도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붙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전작 ‘노크(KNOCK)’로 솔로 아티스트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이채연의 이야기다.

이채연은 한일 합작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에서 솔로 가수로 홀로 서기 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다른 멤버들보다 재정비 시간이 유독 길어서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앨범 만에 자기 색깔을 찾았다.

특기인 파워풀한 댄스 실력을 살린 ‘노크’는 챌린지 열풍을 타고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했다. 지난 4월 발매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인기를 모으고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최고 순위 21위까지 기록했다. 음악 방송에도 재소환돼 추가 활동을 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기세를 몰아 5개월 만에 컴백한 이채연은 퍼포먼스에 더 집중했다. 그는 싱글 1집 ‘더 무브: 스트리트(The Move : Street)’에 대해 “춤에 대한 나의 열정을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콘셉트는 말 그대로 ‘댄서’다. 스트리트 댄스와 발레, 걸스킵합, 탭 등 다채로운 장르를 총망라해 이채연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스트리트 장르는 정확히 정해

진 게 아니잖아요. 나다운 모습으로 나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타이틀곡 ‘렛츠 댄스(LET’S DANCE)’에는 ‘노크’ 성공 이후의 고민이 담겼다. 서용배 프로듀서, 안무가 로잘린과 다시 한번 합을 맞추면서, 중독성 있는 후곡 경쾌한 멜로디로 전작과 결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무대 위 이채연만이 아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의의를 확장했다.

챌린지가 인기를 견인한 만큼 신경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챌린지를 염두에 두고 안무를 만들지 않았다. 포인트 안무인 ‘셔플’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챌린지를 좇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데뷔 때는 쫓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대보다 잘 안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욕심 없이 내 무대에 집중해서 다 같이 즐기는 부분만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도 챌린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웃음)

‘노크’의 성공은 단지 성취 때문만이 아닌 ‘나다운 모습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채연은 “최근에 내가 ‘노크’ 무대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웃는 모습이 예뻐더라. ‘내가 웃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매력을 내가 알아야 확신을 갖

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나다운 모습은 솔직하고 당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거 같아서 무대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 앨범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쳤으면 합니다.”

탄탄대로만 있었던 건 아니기에 더 값진 기회다. 아이즈원 멤버들이 ‘아이브’ ‘르세라핌’ 등 새 그룹이나 솔로 가수로 속속히 데뷔할 때, 이채연은 다시 서바이벌 엠넷(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선택했다. 아이돌이 아닌 댄서들만 구성된 서바이벌이었기에 질타도 많이 받았다. 이후 솔로로 데뷔하기까지 공백기도 길었다.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생겼어요. 실망감은 그런 조금씩에서 오는 거 같아요. 원하는 만큼 무대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죠. 스스로 ‘항상 잘 되는 일은 없지’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공백기에 결을 지켜준 친동생 그룹 ‘이지(ITZY)’ 재능을 비롯해 래퍼 이영지, 그룹 ‘위키미키’ 최유정,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이브 등 동료들 덕분에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 “이제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해질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원동력을 얻었으니 앞으로 나아가길 일단 남았다. 지난해 솔로로 데뷔한 뒤로 1년 만에 앨범 3개를 냈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 그는 “5개도 낼 수 있다. 회사에 ‘황소처럼 굴러달라’고 하고 있다”며 “솔로 가수로서 연말 무대에 서보는 게 꿈이다. 불려만 주시면 기가 막히게 몸이 부서져라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앨범의 소기 목표는 음원 차트 톱 50 진입이다. 이채연은 “노크”는 차트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번에는 발매되자마자 바로 진입했으면 한다. 바로 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도 얻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제일 큰 목표는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보는 눈이 즐겁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래오래 솔로로 활동하는 게 목표면서도 솔로 이채연으로서 유일무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퍼포먼스 하면 생각나는 여자 솔로로 각인되고 좋겠어요. 제 욕심으로는 살아있는 여자 솔로 화석이 되고 싶습니다.”(웃음)

뉴시스



블랙핑크, ‘게임 OST’도 글로벌 차트 강타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게임 OST로도 ‘글로벌 음원 강자’임을 확인했다.

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블랙핑크 더 게임’ OST ‘더 걸스(THE GIRLS)’는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 송 차트 30개국 1위를 석권하며 월드와이드 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는 데일리 톱 송 차트에 45위로 진입한 데 이어 위클리 톱 송 차트 안착에도 성공했다.

또 ‘유튜브 퀴’답게 유튜브에서 인기도 막강하다. ‘더 걸스’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3D 아바타 영상임에도 ‘글로벌 유튜브 송 톱 100 차트’(8월 25~31일)에서 최상위권인 4위를 기록했다. 활동곡 못지않은 빠른 속도로 현재 조회수 2114만 뷰를 훌쩍 넘어 서버 인기 통령을 예고했다.

YG는 “정식 활동이나 무대가 없는 게임 OST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류 팝 시장 내 블랙핑크의 탄탄한 입지는 물론 이들 음악에 대한 리스너들의 굳건한 신뢰를 새삼 실감하게 하는 지점”이라고 자랑했다.

‘더 걸스’는 블랙핑크는 지난달 25일 공개했다. 그룹 지식재산권(IP) 기반의 노래로 주목 받았다. 자주적이고 용기 있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 제니와 로제가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강렬한 사운드에 어우러진 블랙핑크의 역동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한편 블랙핑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등에 걸쳐 약 175만 관객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 피날레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17일 K팝 걸그룹 최초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여는 콘서트로 월드투어 대미를 장식한다.

가수 남승민, 내달 입대...“해군 군악대 복무”



가수 남승민(21)이 10월 입대한다.

6일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남승민이 오는 10월10일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군 군악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 중순 남승민이 팬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입대 전 마지막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다.

남승민은 손편지를 통해 직접 팬들에게 소

식을 알렸다. “사랑하는 승민들께 가족 여러분, 가족 분들이 키워준 가수 남승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군 군악대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승민은 “팬 분들께서 저를 친구처럼 아들처럼, 손자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군 입대 소식에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의젓하고, 남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제 옆을 지켜 주셨듯 저 또한 팬 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싶어 결정하게 됐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멋진 남승민으로, 가수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남승민은 ‘트위스트 킹’ ‘지붕’ ‘바보같은 사랑’ 등의 곡을 발매했으며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드라마 ‘보쌈-운명을 훔치다’ ‘오 마이 워딩’ 등의 OST 참여하며 다양한 음악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 남승민은 MBN ‘불타는 트랜맨’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싱글 ‘세글자’를 발매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롱이’ 고규필, 싱어송라이터 에이민과 11월 결혼



최근 ‘범죄도시3’서 초롱이 역 맡아 주목

‘범죄도시3’에서 초롱이를 연기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고규필(41)이 오는 11월 결혼한다.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6일 “고규필이 11월12일 오랜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규필은 언제나 늘 곁에서 힘이 돼준 싱어송라이터 에이민(본명 민수연)과 오랜 연애 끝에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결혼식은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소속사는 “결혼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언제나 고규필에게

많은 응원과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소중한 연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고규필 씨에게 큰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1982년생인 고규필은 1993년 영화 ‘키드킵’으로 데뷔한 아역 배우 출신 연기자다.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인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드라마 ‘열혈사제’ ‘사랑의 불시착’ ‘연모’ ‘형사록’, 영화 ‘마더’ ‘베테랑’ ‘나의 결혼식’ 등에서 조·단역을 맡아 활약했다. 고규필은 올해 5월 ‘범죄도시3’에서 어설픈 조지폭력배 ‘초롱이’ 역을 맡아 마동석과 호흡을 맞추며 크게 주목받았다.

보이넥스트도어 미니 1집, 발매 당일 판매량 30만장 ↑

데뷔 싱글 초동 판매량 3배 육박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의 미니 1집 ‘와이...(WHY...)’ 판매량이 발매 당일 30만장을 넘겼다.

5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보이넥스트도어의 ‘와이...’는 당일에만 30만 장 넘게 판매되며 ‘일간 피지컬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데뷔 싱글 ‘후!(WHO!)’는 초동 11만 442장을 기록했다. 이번 음반은 발매 하루 만에 전작의 일주일 치 판매량의 3배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들의 성장세는 해외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와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13개 국가 /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타이틀곡 ‘뭣 같아’는 전 세계 11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 차트인했다.



FT 아일랜드, 미니 9집 전곡 작업 참여

밴드 FT아일랜드가 아홉 번째 미니앨범 ‘세이지(Sage)’ 트랙리스트 포스터를 지난 5일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다.

타이틀곡 ‘세이지’를 포함해 총 6곡이 실렸다. 멤버 이흥기, 이재진이 작사에 참여한 ‘세이지’는 강렬한 드럼과 기타 사운드가 인상적인 록 장르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자는 용기를 노래한다.

이번 앨범은 FT아일랜드 멤버가 전곡 작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타이틀곡 외에도 최민환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올 오브 마이 라이프(All Of My Life)’, 이흥기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아임 스틸 히어(I’m Still Here)’, 이재진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브로큰(Broken)’, 이흥기와 이재진이 작사한 ‘넛 이너프(Not Enough)’, SBS M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더 아이돌 밴드: 보이즈 배틀(THE IDOL BAND : BOY’S BATTLE)’에서 프로듀싱한 그룹 ‘G.O.P’에게 선물했던 곡 ‘라이징 스타(Rising Star)(With G.O.P)’가 실렸다.

특히 FT아일랜드는 지난 달 26, 27 양일간 개최한 단독 콘서트 ‘헤이 데이(HEY DAY)’에



서 미니 9집 전곡을 라이브로 선공개하기도 했다. ‘세이지’는 7일 오후 6시 공개된다.